

2022-08-08 (2022-30호)

8월 8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깜짝 美 고용 호조에 이은 美 물가지표 주목... 1,300원 공방

서울, 8월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주 금요일 급락하면서 1,300원 선 아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던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살피면서 1,300원 선 공방을 다시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0-1,310원이다.

미국 7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양호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급등했다. 결국 그간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 미국 고용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 가운데 이번 주중에 나올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7%로 전달의 9.1%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근원 CPI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높아졌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안갯속이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 이후 발표되는 물가 지표 따라 글로벌 달러 행보가 정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그간 달러 흐름을 추종해 온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오락가락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상 저점 결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이 변수로 부상할지를 두고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9월 이후 최장 기간인 7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했고, 그 규모는 2조원을 웃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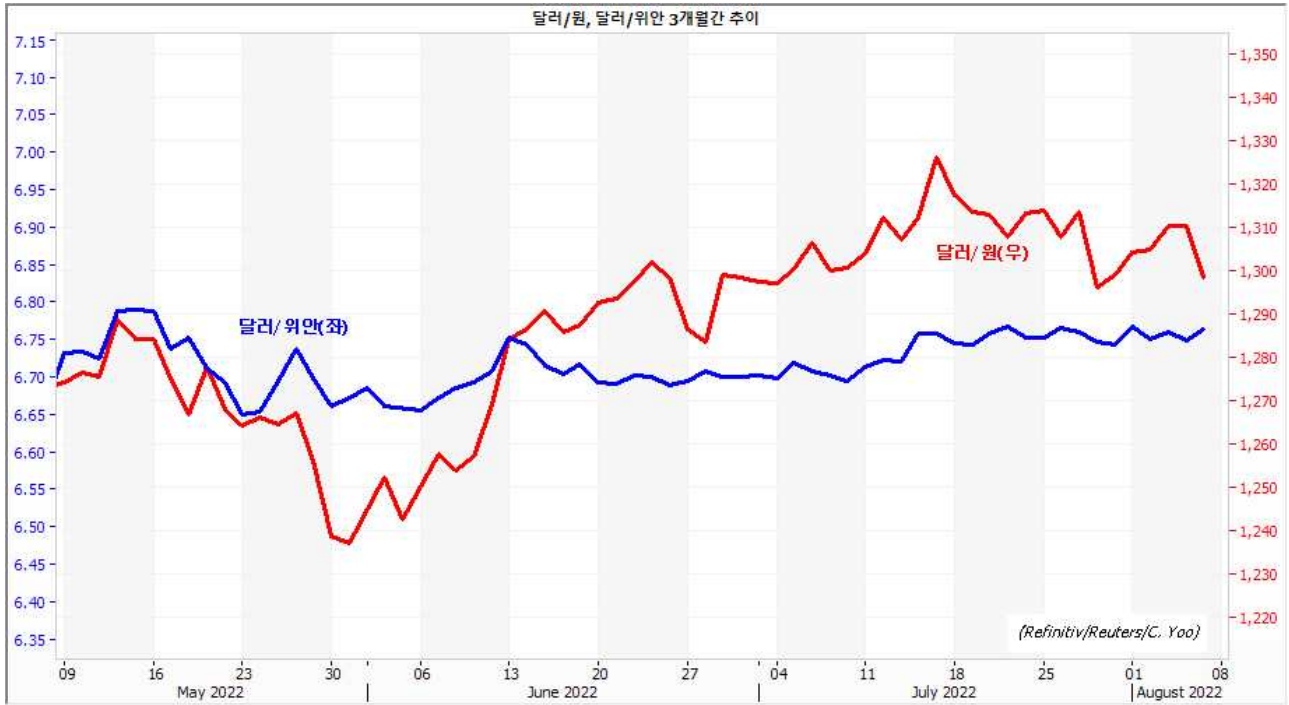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 때문에 역내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 심리가 어정쩡해진 상황에서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계속해서 확인될 경우 달러/원 환율의 단기 고점 인식은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리스크는 큰 부담이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과의 현행 대화와 협력을 대거 단절하기로 해 이에 따른 시장 여파를 가늠할 필요는 있다.

달러/원 환율은 당분간 1,30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를 통해 환율 상·하단 저항을 테스트해보는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되는 국내 경제지표는 7월 고용 동향과 1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다. 해외 경제지표로는 7월 미국과 중국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수와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잠정치), 7월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및 유로존 6월 산업생산 등이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8일(월)

- ⊙ 한국은행: 총재 EMEAP 총재 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9: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15:00)

8월9일(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08:00)
- ⊙ 금융감독원: 원장 임원회의 (14:30)

8월10일(수)

- ⊙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06:00)
- ⊙ 통계청: 2022년 7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7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2년 7월중 금융시장동향 (12:00)
-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프로그램 도입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2.7월 가계대출 동향 (12:00)

8월11일(목)

- ⊙ 관세청: 8.1~1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10:00)
-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차관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2년 6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2022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22.8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17:00)

8월12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2022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차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8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7월		Percent	1.3%
8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6월		JPY	128.4B
8월8일	17:30	유로존	센틱스지수	8월		Index (diffusion)	-26.4
8월8일	23:00	미국	고용추이	7월		Index	119.38
8월9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7월		Index	89.50
8월10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7월		Percent	0.7%
8월10일	10:30	중국	PPI YY	7월		Percent	6.1%
8월10일	10:30	중국	CPI YY	7월		Percent	2.5%
8월10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8월5일 주간		Index	279.2
8월10일	21:30	미국	CPI MM, SA	7월	0.3%	Percent	1.3%
8월10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6월	1.9%	Percent	1.9%
8월10일	23:00	미국	도매판매	6월		Percent	0.5%
8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7월		Percent	11.4%
8월10~17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7월		CNY	2,810.0B
8월10~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7월		Percent	17.40%
8월11일	03:00	미국	연방예산	7월		USD	-89.00B
8월1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1일 주간		Person	260k
8월11일	21:30	미국	PPI YY	7월	10.6%	Percent	11.3%
8월12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6월	0.0%	Percent	0.8%
8월12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7월	-1.1%	Percent	0.2%
8월12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7월	-1.2%	Percent	0.7%
8월12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8월	52.0	Index	51.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9일(화)

⊙ 휴장국가: 싱가포르

8월10일(수)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드레이크대학교·그레이터 디모인즈 파트너십 행사서 연설 (자정)

8월11일(목)

⊙ 휴장국가: 일본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인플레이션

오는 10일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미국 주식시장 랠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S&P500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에 6월 중순 기록한 저점에서 14%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 상승률이 전년비 8.7%로 전달의 9.1%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 펠로시 대만 방문 파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중국은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군사,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이어갔고 대만은 이를 유엔 규정 위반이며 대만 영토 침범이라고 비난했다.

대만달러 등 일부 자산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에 민감한 펀드들은 이미 중국 투자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다.

국제금융협회(IIF)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시장 자금 유출액은 64억달러로, 채권 시장에서 29억달러, 주식시장에서 35억달러가 각각 빠져나갔다.

⊙ 중국 주요 경제지표

중국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요 시장금리인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1년 반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위안화 신규 대출 및 통화 공급 지표가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아직 공식 목표치 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6월에는 2.5%였고 7월 수치는 10일 발표된다.

코로나는 여전히 잠재적 우려 요인이다. 지난주 중국 동부 주요 수출 도시인 저장성 이우시는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일부 지역을 봉쇄하는 등의 억제 조치를 발표, 공급망 차질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 영국 2분기 GDP

지난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영국의 긴 경기침체를 경고한 가운데 영국의 2분기 GDP가 오는 12일 발표된다.

영란은행은 올해 말 영국이 경기침체 진입을 확인하고, 2024년 초까지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영국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분기에는 0.8% 증가했었다.

전년 대비로는 2.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분기 증가율 8.7%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 우크라이나 경제 한숨 돌리나

우크라이나의 국제 채권을 보유한 민간 채권자들은 오는 9일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청한 2년간의 부채 상환 유예를 수용할지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9월1일 10억달러 규모 채권의 만기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세계 식량 위기 완화와 우크라이나 외화 수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시카고 소맥 선물 가격은 2월 초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그래프로 정리한 각국 금리인상 러시... 누가 얼마나 올렸나

8월8일 (로이터) -

영란은행은 4일(현지시간)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7년 만의 최대폭 인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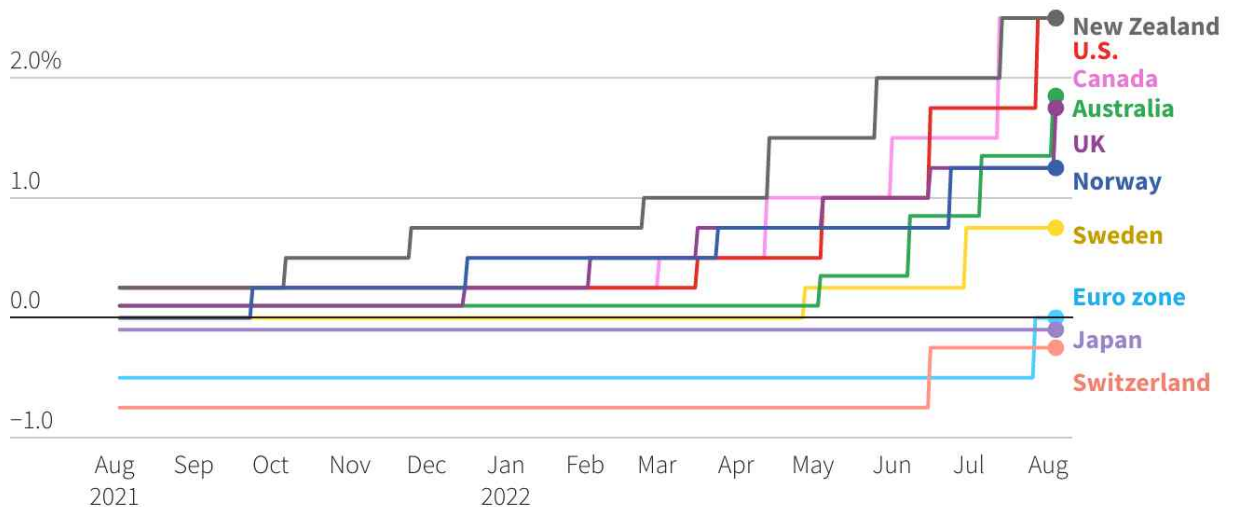
최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2011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들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를 총 1315bp 인상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G10 interest rates

Group of Ten developed economies' policy rates, last 12 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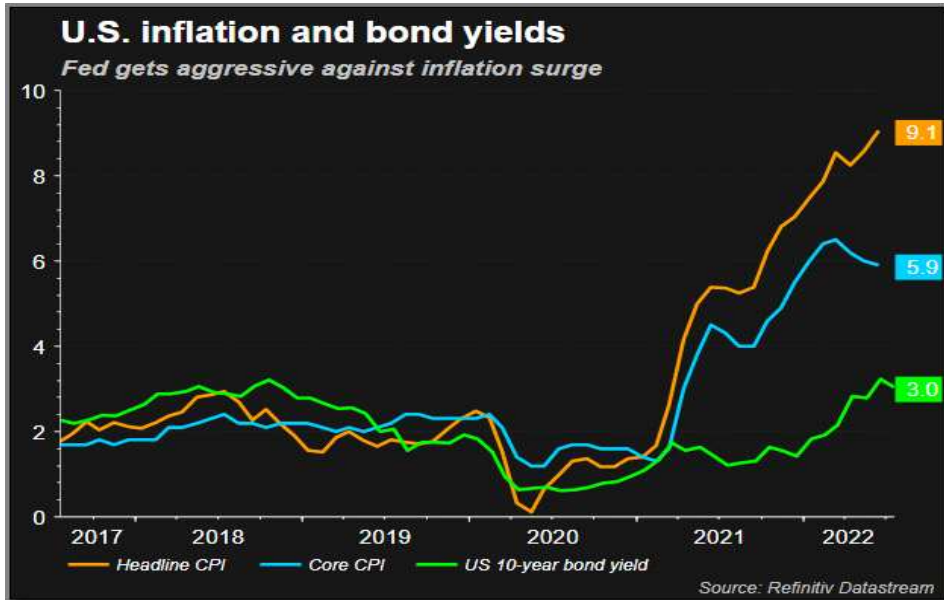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1)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2회 연속 75bp 인상을 단행하고, 통화정책 긴축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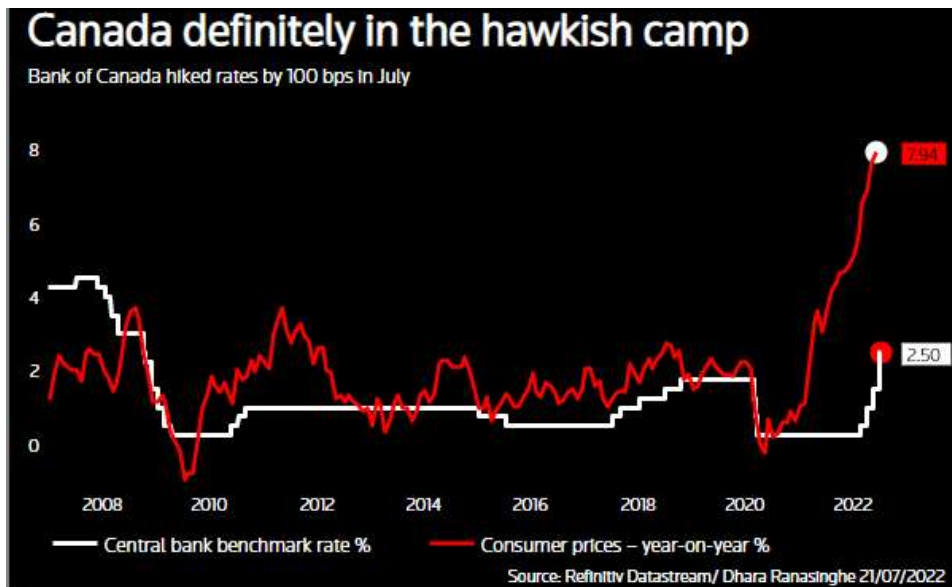
미국의 6월 물가 상승률이 40여 년 만의 최고인 9.1%를 기록한 가운데 시장은 9월에도 75bp가 인상될 가능성을 48% 반영하고 있다. 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하리라고 전망한다.



2)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 지난달 기준금리를 1.5%로 100bp 인상했다.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100bp를 인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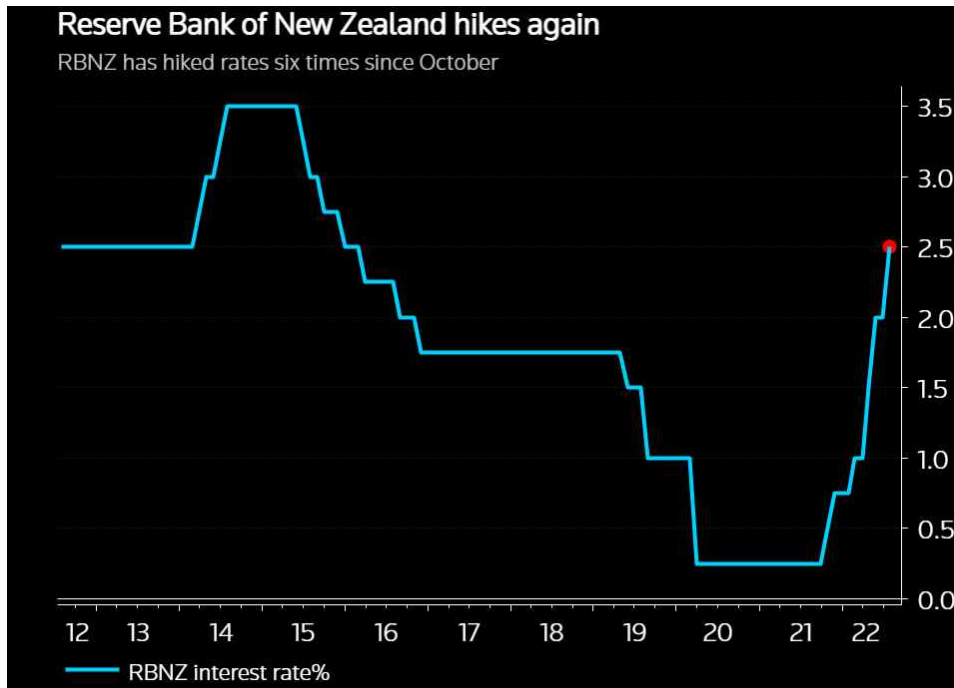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9년 만의 최고치인 8.1%에 달해 애널리스트들은 또 한번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달 금리를 6회 연속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6년 3월 이후 최고치인 2.5%로 올라섰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긴축 계획에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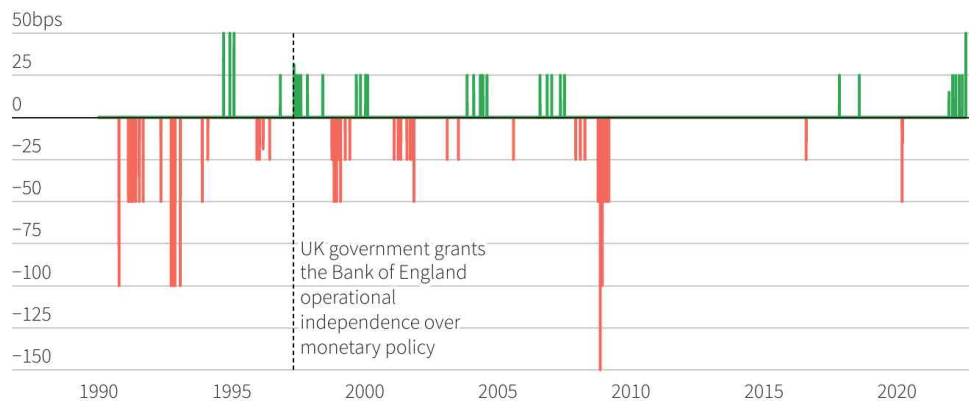
4) 영국

영란은행은 4일 기준금리를 2008년 후반 이후 최고치인 1.75%로 50bp 인상했다.

영란은행은 그러나 영국이 1990년대와 유사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나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하강보다는 덜하리라고 전망했다.

BoE Bank Rate moves

Bank of England raises rates by the most since 1995



Source: Refinitiv Datastream

5) 노르웨이

지난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던 노르웨이는 6월23일 기준금리를 1.25%로 50bp 인상했다. 2002년 이후 단일 인상폭으로는 최대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올해 남은 네 차례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씩 인상할 계획이지만, 총재는 더 큰 폭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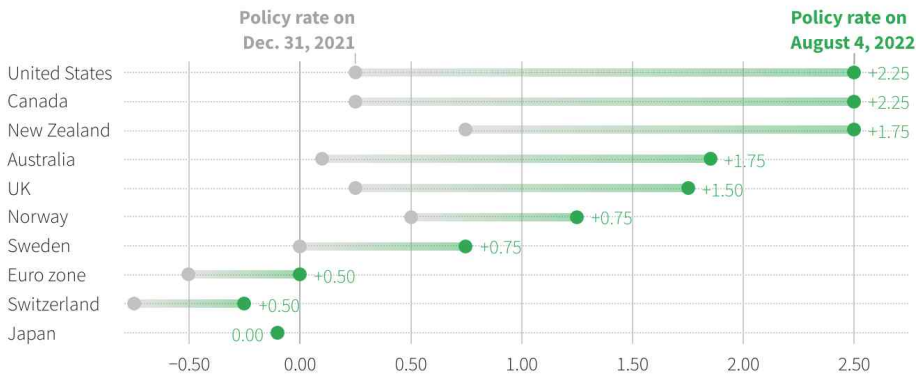
6) 호주

호주 중앙은행(RBA)은 2일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해, 4개월 연속 정책을 긴축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추가 인상에 대한 가이드는 자제했다.

RBA는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급격한 긴축을 통해 5월 이후 총 175bp를 인상해, 이제 기준금리는 1.85%이다.

G10 policy rates move

Year-to-date change in interest rates among the Group of Ten developed economies, percentage point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7)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6월30일 기준금리를 0.75%로 20여 년 만의 최대폭인 50bp 인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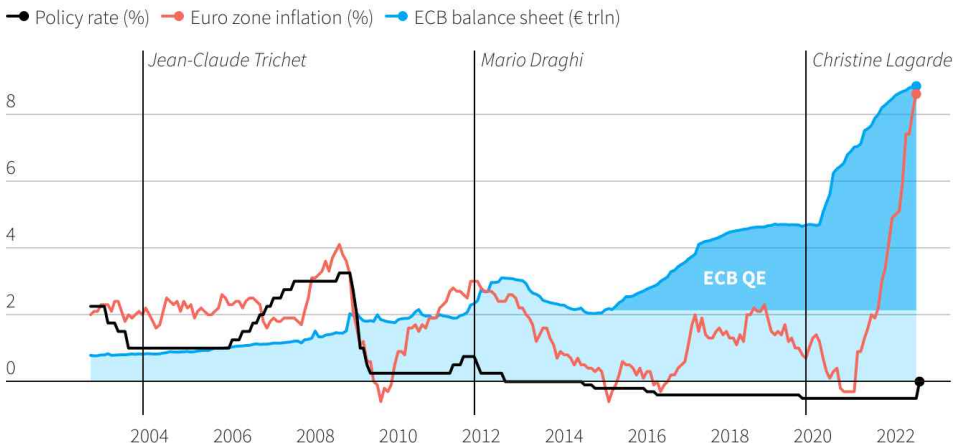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스웨덴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정책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총재는 이제 금리가 2023년 초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75bp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8) 유로존

ECB는 지난달 예금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인상했다. 2011년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는 0%로 올라서며 8년 간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ECB는 9월8일 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 monetary policy



Source: Refinitiv Datastream

9)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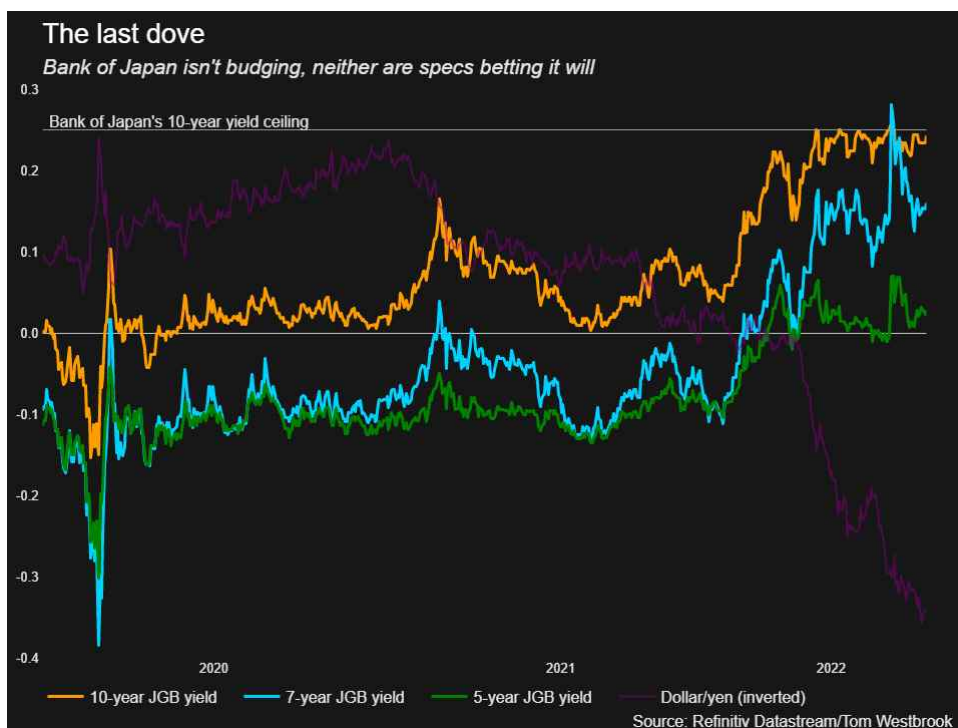
스위스 중앙은행은 6월16일 -0.75%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50bp 깎아 인상해 스위스프랑 가치 급등을 불러왔다.

최근 스위스프랑 약세로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율이 14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한 데다 토마스 조던 총재가 더 이상 프랑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렸다.

10) 일본

일본은 여전히 통화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초저금리 -0.1%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목표치를 넘어서리라는 예상에도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 경제가 아직 팬데믹에서 회복중이고 무역 여건도 악화돼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10년물 수익률 목표치의 0.25% 변동폭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98.3	0.1%	-8.4%	-8.6%	유로	1.0183	-0.4%	-10.4%	-6.9%
100엔 대비	965.8	1.3%	7.0%	+1.8%	엔	134.99	-1.3%	-14.7%	-10.3%
유로 대비	1,327.6	0.3%	1.8%	-1.9%	위안	6.7630	-0.3%	-6.0%	+2.7%
위안 대비	192.80	0.2%	-3.0%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803.47	-0.1%	-9.7%	+18.7%
코스피	2,490.80	1.6%	-16.4%	+3.6%	나스닥	12,657.56	2.2%	-19.1%	+21.4%
코스닥	831.64	3.5%	-19.6%	+6.8%	S&P500	4,145.19	0.4%	-13.0%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6.34	0.8%	-16.4%	-4.9%
국고채 3Y	3.079%	7.0bp	128.1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099%	3.2bp	108.8bp	+67.6bp	미국채 2Y	3.230%	34.0bp	250.0bp	+61.0bp
국고채 10Y	3.124%	-0.3bp	87.4bp	+53.7bp	미국채 10Y	2.830%	17.0bp	13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8.53	-9.9%	17.3%	+55.8%	한국 5Y	41.2bp	-1.6bp	19.2bp	-0.7bp
금(현물)	1,775.15	0.5%	-2.9%	-3.6%	일본 5Y	24.3bp	-2.1bp	6.7bp	+2.1bp
TR상품지수	3,545.79	0.1%	6.2%	+24.6%	중국 5Y	80.2bp	2.9bp	39.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